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생
민중 복음화
세계 전교
아름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이다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월성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자
자
자
하
라

“...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막 4:35~41)



돌려싼 풍랑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35절). 예수님은 온 종일 바닷가에서 여러 비유로 군중들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37절). 제자들은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보낼 정겨운 시간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군중들을 돌보고 섬기느라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사형통의 오해

물론 제자들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찌든 생활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고난과 역경이란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기쁨과 승리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선택여행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폭풍을 만나셨습니. 따라서 무조건적 축복만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됨을 의심하게조차 합니다.

기대를 저버리는 풍랑

예수님은 많은 복된 약속과 함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에서 이루어질 매우 개인적인 교제의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느라 몹시 지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대를 일시에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릴 만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런 문제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 배가 거의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절규하듯 외친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38절).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서 두려워 떨며 상실합니까?

풍랑은 있기 마련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 편에 있는 행복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싶어합니다. 이 때, 예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곳에 도착 하는 날까지는 매일의 삶에서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용기가 없으며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폭풍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마지막 항구에 안전하게 다다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폭풍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건질 수 없는 풍랑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풍랑들은 어떠한 것들이니까? 사실, 강하게 불어 오는 태풍, 배를 삼켜 버릴 듯이 덮쳐 오는 성난 파도, 그리고 무섭게 울려대는 천둥 번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의 공포는 거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지진과 허리케인, 눈사설과 홍수 등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이 지구 상에는 우리가 전혀 감당해 낼 수 없는 일들이 널려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타락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롬 8:22). 하나님의 자녀

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폭풍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 앞에서 생환이 순식간에 환난해지더라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으니 그의 완전한 보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과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 풍랑 인하여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폭풍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 그의 사명을 재확인 시키는 폭풍이었습니다(은 1:4). 사도 바울이 만난 폭풍은 그와 일행들을 사우라라는 섬에 불시착하게 하여 그 섬 사람들과 로마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는 기회의 폭풍이었습니다(행 27,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믿음을 시험하는 폭풍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40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폭풍이 다가옵니다. 어떤 것들은 볼 수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불어 오는 폭풍이 있는가 하면 짧은 폭풍도 있습니다.

어떤 폭풍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아주 아파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폭풍이 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멸절이 한이 없으시며”(사 40:28). 맞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피곤해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멀리 출장을 가 있을 때나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이 여행을 마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잠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성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39절). 갈릴리 바다와 파도는 즉시 물러 가고 달은 구름 사이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다시금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뒤편에는 배가 뜰을 가르는 소리와 제자들의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는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완전한 평온을 가져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그 외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척임을 증거하십시오. 사실, 매일 불어오는 폭풍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과 늘 동행하게 만드는 기회의 선물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폭풍을 지금 당장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완전한 평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들은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 내적인 평화, 상상을 초월하는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랑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분을 깨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토록 주시길 원하시는 평화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BE STILL

"... And being aroused, He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 And the wind died down and it became perfectly calm.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so tim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 (Mark 4:35-41)

After a very long and hard day of preaching, Jesus rests on boat that is traveling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of Galilee. The crowd that gathered to Him was so great that day by the sea that he had to preach sitting in a boat away from the water's edge(v. 1). Many people surely sat on the sand or driftwood, others probably stood knee deep in the water and still others most likely surrounded Him with their own boats trying to get closer to Him. They all wanted to hear Jesus.

Jesus taught them that day in parables. Parables were told by Christ usually to make the truth more engaging and clear to those who were willing to hear(Lk. 15:3). But sometimes they were used to make the truth obscure to those who lacked spiritual sensitivity(vv. 11-12). Some of the many parables Jesus gave them that day were the Sower(vv. 3-20), Lamp on a Stand(vv. 21-25), Growing Seed(vv. 26-29) and Mustard Seed(vv. 30-34). Everyone heard about the kingdom of God. So many people surrounded Him that day by the sea that it was necessary for Him to be alone with His disciples(v. 34).

"On that day, when evening came, He said to them, 'Let us go over to the other side'"(v. 35). Jesus invites His disciples to join Him on the journey to the other side. He wants to be alone with them. His invitation brings a great storm, "And there arose a fierce gale of wind, and the waves were breaking over the boat so much that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up"(v. 36). Obviously, the disciples' time with Jesus wasn't all peaches and cream. They were probably all fired up and excited about their private time with Him until the big winds came. So many people think that union with Christ is trouble free. They envision this grand life with total joy and victory; without any sufferings or afflictions. They don't understand the storms and the reasons for the storms. Really, so many people wonder what's up with this Man whose association causes storms?

Jesus is the Man whose invitation is loaded with promises. He promises fellowship during the journey, safe passage to the other side, and wonderful blessings that await on the other side. On this side, we can see the tired and wearied condition of the disciples. All day they had served, cared, and ministered to the large crowd. Now their energy was low and now was the time that the wind blew. We see their lack of faith and hear their scared voices,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v. 38). How often do we panic or experience anxiety during a storm? The disciples were weak but in their weakness they knew who to wake-up to help.

So many people want to travel with Jesus to the other side. Those who accept will arrive safely. They will receive their heavenly stored treasures and countless other blessings of eternal life with God. Until that day, all Christians must weather the storms of daily Christian life. But you can't persevere alone. No one has enough strength, courage, or righteousness to survive. Jesus is the only hope of survival and thus safe arrival.

Jesus is the Man who is with us in all the storms of life. His fellowship is mandatory. Without Him there is no peace, no chance for eternal life. We know today's story. We can relate to the great storm of wind. We understand that high winds, rolling thunder, and huge waves are nothing to laugh about. We know how powerful nature can be. We've all seen or heard about the havoc of earthquakes, hurricanes, tornadoes, snow and hail storms, etc... So many types of dangerous and disastrous

things happen on this earth. So many things occur that we ourselves cannot handle.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suffers the pains of childbirth together until now"(Rom. 8:22). The disciples' travel experience with Jesus contains a very important lesson for us. The storm comes to the disciples, not happiness. Even though they experienced nothing all during the day, the storm still came. Though you are His child, you still must pass through the storms of life. With Jesus, you can experience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Even though everything around you may appear to be in chaos or turmoil, there is no need for despair. Knowing that you are in Jesus' hands and under His total protection gives you inner peace. Jesus is the Man of safety and peace.

Every storm is different and every storm has a different meaning. Like Jonah, his storm was meant to return him from backsliding (Jon. 1:4). Paul's storm opened up the door of witnessing to many Roman soldiers on an island (Acts 27&28). Here in today's message, the disciples' storm was meant to test their faith, "And He said to them, 'Why are you afraid?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v. 40). Truly there are lots and all types of storms. There are invisible and visible storms. There are short and long storms. There are life threatening and life taking storms. There are storms from above and storms from below. Human life and most especially Christian life experience storms.

The key is that Jesus was with the disciples in the storm. If you are a Christian in a storm, Jesus is with you too!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Does not become weary or tired. His understanding is inscrutable"(Is. 40:28). That's right. Jesus never tires. He always stays with us. Whether we're in a distant land or asleep at night in our beds. He is indeed there! He takes away our weariness and gives us the energy we need to keep going on the journey.

When the disciples awoke Jesus,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with the word's "Peace and Be Still"(v. 39). Immediately there was complete calm; the waves ceased, the sea flattened, and the moon broke through the clouds. The only sounds on the water that night were the movement of the boat and the swift heartbeats of the disciples' hearts. What kind of Man can make everything calm? Only the Man of God, the Son of God, the Lord of all has the power. Dear friend, let's think of Jesus and today's storms. Is Jesus with you in your storm? Do you believe Jesus can calm your storm and give you peace? Often we indeed believe that Jesus can give eternal life. The problem is that we say it but we don't call upon Jesus during every step of the storm. To live the life of faith in the face of its hindrances requires Jesus. Wake Jesus up! Let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define the essence of your life and faith.

Do you practice your faith? The very storms of everyday life require that you wake Jesus up and get together with Him. Exchange your weak and totally insufficient strength for His. He can calm your storm and give you peace right now. This is what's happening in Mark 4, my dear friend. Those that practice their faith truly experience the 'Be Still'. Peace, true peace, inner peace, peace beyond your imagination,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 this peace can be yours with Jesus. Pray to Jesus and wake Him up now! Receive the peace He so much wants to give. Let your life reflect the 'Be Still' moments of knowing Him. 🙏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께

부처의 탄생과 죽음을 기념하는 5월의 축제 '웨살' 때에는 많은 인파가 온 거리를 메웠고, 밤에도 낮과 같이 번쩍번쩍하는 야경을 거리 어느 곳에서든 목격할 수 있었으며 부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행보에 관한 이야기가 스피커를 통해 온 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또한 6월 15일은 '포논 포아데이'였는데 이 날은 불교가 스리랑카로 처음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불교가 최초로 들어온 곳은 '아누라다푸라'라는 곳인데 많은 여행인파들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깨닫고자 함과 거룩하심이 아닌 더러운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행위는 조상들이 하던 것을 존경하는 마음의 표시이며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100여 년 전에는 같은 상황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약속된 장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약을 구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연약함과 나의 믿을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강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지금도 가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며 섬뜩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곤란한 때를 지나가며 하시고 제 연약함을 통해 주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하신, 곤고함을 주시되 아주 넘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배웠습니다.

외국교회 사역은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갓난아이가 젖을 떼고 걸기 시작하면 바쁘게 변한 자라듯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11명이고 간헐적으로 출석하는 교인과 예배 인도자를 포함하면 15~16명 정도 됩니다. 금년 안에 학습과 세례받을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네 명의 여성(우필나다, 난다, 말라니, 스리안다)들과 예배 전 기도회와 수요일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공부 2년을 마친 '잔' 전도사와 주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전도사를 작은 마을교회에 투입하는 문제로 많이 고민하며 기도 했는데 지금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자의 선택이 보이지 않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성경공부를 그만 두었고 그 때문에 웨살리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지니 어머니가 교회 출석을 중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중개되어야 하기에 이

곳의 사역자들에게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은 두서너, 라지니, 다랑가니, 카소이카, 루이니, 안일 그리고 자안티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주일예배와 수요성경 공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안티는 지체장애인이입니다. 가족을 방문해 심할라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역에 비중을 두다보니 지방사역 비중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한 주를 제외하고 때 주말이면 (보통 목, 목 1박2일, 또는 금,토) 지방 전도여행을 하는데 지난 2월부터는 예수 영화를 컴퓨터를 통해 상영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씀사역 할 때보다 지방에 출저어 있는 형제들을 자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영화를 보여준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수 영화 상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부 비판 언리와 콜롬보 인근지역에서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두 시간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문제도 있고 불교가 강한 집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시청일만 기도하며 진행해야 하는 것, 그리고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 등 여러 가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와디와콜라'에 있는 두민더의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을 했는데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아서 애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후반부는 보지 못했는데 적절한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지역에 사는 텐나집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맞은편 가게에서 싸구려 잔돈을 바꾸는 것을 밟아쳐 감시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인근 집에 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지인이 불교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물려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도 있고 닫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역을 하면서 한국 다녀온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이들에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체롭게 시간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방사역은 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니르말리와 동행합니다.

기도 동역자님께 늘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교회와 기도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곳 외국교회와 지방에 출저어 있는 형제들이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7월말에서 12월까지 13개의 단기선교팀이 더 오신다고 합니다. 복음이 좀 더 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 주셨던 것처럼 각 팀원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각 지역과 마을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리랑카에서 감기영 올림

오직 믿음으로

고통에 직면하는 성도들②

성경은 곤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곤난에 참예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곤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고통이 유익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어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고 잘못을 시정하게 되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찾은 잘못을 시정했는데도 고통이 오면 또 다른 잘못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망한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난 모르겠으니 내게 알려 주십시오"하고 말한다. 고통은 유익이 아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이 잘해서 상급을 받은 듯이 생각한다. 어떤 행위를 잘하면 고통이 오고 행위가 좋은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성경의 곤난을 받은 무수한 선지자들은 모두 극악한 인간들인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다 간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죄를 알게 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면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드는 수단으로 고통을 이용하시는 것이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죄회고 그 죄를 유추하고 또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와 고통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호 5:15).

고통은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 또한 고통은 인간들의 부패와 죄성을 깨닫게 만든다. 인간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을 때 그 본성이 작용하는 바에 따라서 그 본성의 부패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한 바를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불분명한 상태로 부패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역하며 불신실한지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는 동안에 부패의 여러 작용들을 체험하게 하시므로 그들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도와 곤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곤난을 응징으로 받아들이거나 원망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저주의 대상을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부패함과 죄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다. 이것은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아무런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써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방법 중 하나가 곤난을 주는 것이다. 그러고 돌이켜 고통이 없는 나라를 기대하며 나의 의지해라. 죄를 알고도 수고하지 않고 산다면 너희는 나를 잊고 영원히 사단에 사로잡힐 것이니라."

이에 예수님은 곤난을 끝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곤난을 끝내고 영광에 이를 것이다. 다만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녀이면 또한 자주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도집)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4교구 2지역	오순도	불가리아	7월 15일(화)~7월 25일(금)
14교구 1지역	조흥진	우즈베키스탄	7월 15일(화)~7월 25일(금)
14교구 6지역	강만수	인 도	7월 16일(수)~7월 25일(금)

★ 현재 지역 중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9교구 7지역	김승근	카자흐스탄	7월 4일(금)~7월 15일(화)
14교구 5지역	황기용	몽 골	7월 4일(금)~7월 15일(화)
2교구 6지역	이영환	키르기스스탄	7월 8일(화)~7월 16일(수)
10교구 4지역	조영철	불가리아	7월 8일(화)~7월 18일(금)
13교구 3지역	권영주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13교구 4지역	임재훈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2교구 7지역	최지훈	몽 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CMTC 집중훈련 안내

그동안 시간적인 이유로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CMTC 집중 훈련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에 교육 훈련을 수료하여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 2003년 7월 17일(목) 9:00~18:00
2. 장 소 : 갈릴리움
3. 대 상 :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있는 성도
4. 회 비 :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1강 (9:00~9:50)	영성 훈련 (I)	정현민 목사
2강 (10:00~10:50)	교회 선교 정책	이종철 목사
3강 (11:00~11:50)	선교 역사 (I)	고광현 목사
4강 (12:00~12:50)	선교 역사 (II)	인창덕 목사
	점심시간	
5강 (14:00~14:50)	전도 실제	여국근 목사
6강 (15:00~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빙준영 목사
7강 (16:00~16:50)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여성기 목사
8강 (17:00~17:50)	영성 훈련 (II)	이종대 목사

* 전반기 CMTC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인해 수료하지 못한 성도는 금번 집중 훈련에 미수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수단'과 '목적'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현지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 철저히 문을 닫고 있는 동포들의 강박함을 이야기하며 많이 힘들어했다. 그러던 중 한국에 근로자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동포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에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상관없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도구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주셨다. 우리 총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신 '목적'은 이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다.

많은 단체와 교회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많은 도움을 베풀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외선부 자체들이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도움과 관심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 대한 영적인 긍휼보다는 이들의 인권과 관련된 정치적 혹은 경제적 상황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긍휼이 대부분이다. 인본주의적 긍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수단에 초점을 맞춘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복음보다는 딱이 우선이라는 경제적, 인본주의적 논리가 앞서게 되는 것이다.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교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려고 노력한다. 이 근로자들을 만나려는 속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선교를 가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1명 이상의 새신자 등록이라는 숙제 해결을 위해서일 수도 있으며, 미리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관심대상이 아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종현 2교구, 방글라데시 팀)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3)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박 11일간 불가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번 우즈베크에 갈 때는 팀원으로 참가해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팀장으로 가서 신경이 많이 쓰여 설사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모두 맡기자는 결심으로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의지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한 뒤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부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설사도 멈추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도도움을 통해 주어진 말씀들이 항상 팀원들에게 도전을 주고, 각 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착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 사역에 주께서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도착 예배 때 우리가 본 본문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무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아원에 갔을 때가 가장 기억납니다. 그 때 아이들이 불쌍해 끌어안고 울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와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세상은 너희를 버려도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물질을 주고 싶었지만 혹 그들이 다음에도 복음을 기다리지 않고 물질을 기다릴까봐 복음만 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만으로 좋은 교제가 되었는지 사진을 찍고 싶다고 요구해 한국에서 사진기를 안 가져 왔다고 했더니 고아원 사진기를 가져와 우리와 사진을 찍고 복음을 받은 기쁨을 남겼습니다.

또 불가리아 정교인들을 만났을 때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해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써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더니 '은혜'를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은 못 살지만 자신들 정교인들은 선행을 많이 하니 복받아 잘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잘 답변해주고 싶었지만 이런 깊은 이야기까지 할 만한 언어를 준비하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그들이 언제가는 누군가를 통해 제대로 복음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13교구 6지역장
강진택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김누리 (대학부)

캠퍼스들의 개나리가 두 번이나 피었다 졌습니다. 저는 2학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일 년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꿈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났고 주님은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풍덩 빠져서 이리나 저리나 돌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나를 깨우십니다. "누리야! 이것 좀 봐" 하고 나의 눈이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봄의 마지막 달인 5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부에서도 체육대회나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는 축제를 엮니다.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는 대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가수를 초청하고, 응원제를 하며, 여러가지 공연을 하는 등 즐거움을 북돋기 위하여 많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 동안 중간고사나 레포트 등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들을 그 시간에 배출해 버린다는 생각으로 속된 말로 미치도록 노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늘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난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두렵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축제의 클라이막스인 마지막 날, 그 중에서도 특히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고사를 지냈었습니다. "지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올 해 축제 때는 고사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고사를 지내지 않고, 그걸 대신 핏물을 하고 낭독문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사를 막기 위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동창들이 모여 눈물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땅에서 20여년 간 하나님의 주인도심을 부정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는 고사가 지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세워진 대강당은 예배보다는 각종 콘서트며 집회가 행해지는 곳이 되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단상에 올라가서 올라가 에베를 드리며 세상을 구원할 힘은 관세음보살에게서 나온다고 외치는 상현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축제의 흥거움에 도취되어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던 작년 저의 모습과 대강당을 개방하여 문화공간으로 이용하자는 서명 운동에 싸인을 했던 저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회개합니다. 제비와 흥거움과 그럴듯한 언어에 속아서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은 비단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의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계령 제일

젊은, 우리는 복음의 사도 15

고동부 때 친구들이 단기선교 다녀왔습니다. 그 때, '해외에 간다'는 것이 부러워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여름에 불가리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처음 나가는 전선로서 무척 조심스럽고 겁이 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예상 외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의사소통은 원활하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한국에서 왔다는 점이 그들을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를 알리고 진리 선포를 하였는데 오히려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복음을 전하러니 '친구들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아닐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친구로부터 인도로 선교를 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재정 문제도 있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통해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갈등하다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니 주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도팀은 팀장인 장로님과 총무인 집사님, 그리고 8명의 대학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래를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학생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로 나뉘서 축초전도와 노방전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관 우리의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해서 은혜를 나누길 바라고, 또 선교 보고서가 다음 팀에 잘 전달되어서 좀더 효율적인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재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가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를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감잡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눅 9:26)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죄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지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또 의인이 그의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리라" 내가 그 죄 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게 하리라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니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라" (렐 3:17-21). 이 말씀이 떨리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교수님과 학생들이 눈물로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의 응답으로 고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회적인 이름뿐인 고사제지인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 13:5)의 말씀같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학부 한사람 한사람을 세상의 곳곳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지 않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나의 학교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난 것도 아닙니다. 전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부끄러워한 채로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안연.

장학생 인터뷰 12

고동부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천국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고동부 교사로 하는 것은 일꾼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동부 아이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내 자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청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처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인간적으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선전처럼 보이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하고 모양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전하면서 당장 나 자신은 내가 죄인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고 나니 예수님만이 오직 한분인 구주시라는 것을 내 마음 깊이 확증하게 되었고 거리의 사람들에게 전신없이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만이'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하던 막대한 신앙에서 예수님의 구주도심이 중심되는 신앙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착하게 행동하며 성실하게 정전받던 천국일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구제적으로 제시하고 권면을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야 천국일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고동부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우주 (대학부)



정성민 (대학부)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여!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시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를 매일 한 번씩 찬양하라고 권해서, 오래 전부터 자주 마음 속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동행하심을 깊이 깨닫습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시절 교우관계 등 여러 상황에 어려움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6학년 무렵부터 말씀을 매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특히,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늘 소원합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악기를 통해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터
발음 오케스트라 악장

(엄해원 기자)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정자'성도를 소개합니다

한 10년 전 품에 종교를 갖고 싶어 동네의 작은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남편의 완강한 반대로 못 다니게 되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충현 교회의 한 집사님께서 남편을 전도하여 남편과 함께 충현 교회에 나왔습니다. 분명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가려 하던 남편이 "또 가냐?"하며 눈치를 줬는데 지금은 남편이 "시간 됐다, 지각할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니도 남편 눈치 보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었고 눈도장만 찍고 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새가족 말씀, 공예배 말씀, 부서집회 말씀 등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땅바닥에 붙어있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진다. 예배 전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서둘러 교회 오려 하는데 아이들 밥을 차려주다 보면 항상 빠듯하게 와서 아쉽다.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전철을 타든, 어디에 있든 고백한다. 목사님이 세신자들은 새 세상을 본 아이들이처럼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그것은 목사님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이나 수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까? 하는 것이다. 완전히 가투가 되어서 뼈도 없을 텐데 말이다. 그 날이 기다려진다.

(편진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26	김남숙	1 소양부	830 강은주	14 청년부	김현진(6)	852 박혜영	19 청년1부	박광래(17)			
827	문장국	1 청년2부	이현재(4)	831 허영규	14 청년2부	김영연(14)	853 신혜진	19 청년1부	박광대(2)		
828	공연옥	1 청년3부	이현재(4)	841 강명수	14 청년3부	김문진(16)	854 김도란	19 청년3부	박석산(6)		
829	한송희	1 청년4부		842 김은혜	16 대학부	김연진(16)	855 장은교	19 대학부	오정영(3)		
830	임영찬	3 장년1부	홍은기(3)	843 유난수	17 청년1부	유기영(6)	856 김미란	19 청년1부			
831	김은경	4 장년2부	권오준(4)	844 허정혜	19 중등부	정민영(6)	857 박민석	19 대학부	성바오(19)		
832	서희경	4 소양부	김석재(4)	845 이은성	19 청년2부	고정숙(17)	858 이우희	19 대학부	아미리아(1)		
833	김진훈	7 장년3부	성명선(3)	846 이희종	19 청년3부	전병자(4)	859 이재현	19 대학부	권보삼(2)		
834	김정숙	8 장년4부	유호진(17)	847 정훈지	19 청년4부	최영애(17)	860 조재옥	19 대학부	박광식(6)		
835	김영희	9 청년2부	양영래(18)	848 민선혜	19 청년1부	오성훈(12)	861 홍성숙	19 대학부	박광식(6)		
836	박덕희	9 청년3부	장문구(15)	849 박승주	19 청년2부		862 이진애	19 대학부	노미소(14)		
837	김덕순	9 장년2부	정진미(9)	850 정보영	19 청년1부	박석산(6)	863 이설희	19 고등부	주환재(2)		
838	김보람	19 중등부	유기경(19)	851 박희성	19 청년1부	박광래(17)	864 김은경	19 중등부	구원훈(19)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여!

주의 행하신 일은 어찌 그리 기이한지
불멸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이라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으니
불멸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나의 주 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생명과 평강의 왕座上 퍼를 흘리시니
인생들이여, 와서 그를 바라보라
죄인들이여, 와서 그대들의 창조주가 죽으시는 것을 보라
일찍이 그처럼 절고(疾苦)를 겪으신 일이 있었던가?
그의 보혈이 죄인들에게 값없이 뿌려지니
와서 함께 그의 보혈에 온 몸을 적시세
나의 주 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백역자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 하심이라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시고
그대들은 예수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으니
창에 찢린 그의 옆구리에서 만민을 위한 죄 사함이 흘러 나오네
나의 주 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앉아서
치유의 샘물을 기쁘게 마시세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세
모든 생각과 말을 그리스도로운 채우세
나의 주 내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도다

* 찬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작사한 찬송시

*참고 구절: 사 53:4-6, 마 1:12, 요 1:1, 요 19:34, 행 3:15, 행 20:28,
골 5:8-9, 고전 2:2, 빌 3:7-10, 히 9:2, 요한 4:9-10.

다름 주일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작가인 윌 마틴 토퍼슨이 1904년에 작사, 작곡한 것으로 예베소서 1장 7절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에 근거하였다. 이 찬송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리직 내용을 고백하기 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노래한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삶에 의거해서 슬픔을 위로하시고 낙심할 때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늘 동행하시고 생명과 기쁨이 되신다.

- 1절: 예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전부라 되심이다. 나의 생명, 나의 기쁨, 하루하루 사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이다. 그가 없이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슬픔에 빠질 때 내가 달려가오니 주님 위에 위로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 2절: 예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전부라 되심이다. 내가 은총을 받으려 고 주께로 나아갈 때 그가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빛나는 햇빛과 단비를 내리시니, 그가 풍성한 곡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 3절: 예수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전부라 되심이다. 그는 나의 진실한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이 귀한 친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발나옴도 그가 나를 지키십니다.
- 4절: 예수는 나에게 이 세상 삶의 전부라 되심이다. 나는 더 이상의 좋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는 그를 신뢰하고 앞으로도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내가 지금 그를 믿고 있고 여전히 그를 믿겠습니다. 이러한 친구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이 부요한 삶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기쁨,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기쁨입니다. 그는 진실로 나의 친구입니다.

(찬양위원회)

카자흐스탄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허진혁 (에바다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카자흐스탄 단기선교팀 12명과 함께 10월 11일 동안의 사역을 감행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지시간 6월 10일 밤 9시에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허가 자물쇠가 많은 자석이었습니다. 알마티 공항을 출발하여 호텔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지내지만 하던 저녁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알마티를 비롯한 여섯 곳을 하루 평균 여섯 시간 정도의 거리를 오가며 출초전도와 집담전도를 하였습니다. 우즈나가지의 농아인협회장 덕을 방문했었는데 처음에는 부부 두 분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아픈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타고 주위에 있는 농아인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농아인협회장 집에는 우물이 있어 펌프질도 하면서 한 때의 더위를 식혔습니다. 저희 선교팀은 가는 곳마다 미리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는 청각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돌아온 탕자’를 성극으로 보여주며 예수님을 통해야만 구원이 있음을 가르쳤고, 또한 사영리와 찬양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대화로 풀어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밋밋니까? 나이가 밋밋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구원을 얻습니까. 예를 믿으세요’ 하는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알마티는 날씨가 40도의 열이었는데 성극을 하고 찬양을 통해 열량 돌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월 분들이 있었기에 참고 이겨낼 수 있었고, 특히 주님께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힘이 솟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알마티농아인협회장께서 저희 단기선교팀을 초대하여 귀한 공연과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마술쇼와 마임을 보았습니다. 2시간 정도 공연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여유 있는 행동과 비릿하고 새콤쓰레하고 맛있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지지 않는 해와 시간의 느낌제과와 시원한 공기입니다. 참! 양떼들과 소가 이동하는 모습 위에 깔려있고 넓고 가파른 수평선, 그리고 푸른 호수와 눈 덮인 산들도 꽤 높은 수 없군요.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심령을 지닌 카자흐스탄의 청각장애인들도요.

하나님이 제(키시리라

오수빈 (중동1부)

사람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체험한다. 가끔씩 위험도 겪고 파멸도 당하고 슬픈 일도 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마도 시험을 당하는 일일 것이다.

시험에는 매우 여러 가지의 시련이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련, 직장이 파산하는 시련, 금야아 은이카를 자식들이 죽는 시련, 참 많은 시련들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시험성적을 나쁘게 받는 시련, 또 교우관계가 나쁜 시련 등이 있고 어른들에게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시련, 사고를 당하는 시련 등 사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을 준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격정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언제나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린 그런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또 너무나도 건디기 힘든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람은 약한 동물이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동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다. 물론 그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니 감사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언제나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수 1:9).

민음의 학교에서

악한 왕 아합 (왕생6장)

“유다 왕 아사 세 삼십팔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29a 절). 아합왕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에 올라 2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당시 정세는 일시적인 안정상태였습니다. 이 안정상태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30.31절). 아합은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정도는 죄로 생각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딘 자였습니다. 우리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양심에 화인(火印) 맞은 자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단전 4:2). 또, 나름대로 절절해 놓은 도덕적 가치의 기준을 어기지만 있으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죄(罪)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어 죄(罪)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렘 2:1-10). 우리는 죄(罪)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죄(罪)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

오므리왕은 아합을 베니야아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켰습니다. 시돈 왕녀 이세벨과 결혼이 아합을 타락하게 만든 큰 원인이었습니다. 시돈과 이스라엘의 동맹관계를 위한 이 정략적 결혼이 정치적으로는 편리했지만 이스라엘 속에 바알숭배를 들여 놓는 계기가 되어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열정적인 신교사처럼 이스라엘의 신을 바알로 대체하려 합니다. “자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32절). 아합은 이세벨의 열성으로 북쪽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아합은 공식 제사에 이방 공교를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전의 열왕보다 더한 극도의 후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안정을 위한 선두로 외교행각이 이치러져 타락한 문화와 우상, 참신문화를 함께 들여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요?

“그 시대에 뱀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만아를 바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팔레 아를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34절). 히엘은 여리고성을 재건하려는 도중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경고(수 6:26)를 무시한 탓인데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성취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어긋없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

(권형일 기자)

진리의 생

데살로니가후서(2 Thessalon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곰곰없이 지독한 환난에 대하여 신자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가되는’ 불같은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에 대하여 갖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먼저 보였던 ‘데살로니가서’로 말미암아 야기된 오해들은 부작용을 낳아까지 했습니다(‘데살로니가서’는 주후 51년 봄즈음에 기록). 그래서 바울은 신실하게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주후 51년 초 여름에 기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다시금 험한날 종말적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으면서 우선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원을 확신하여 건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선포했던 내용이었으며,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건전한 인내를 야기시키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42:1-4, 62:1-2).

또한 바울은 배교적이거나 적(敵)그리스도적인 자들의 출현을 경계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양과 가르침으로 유혹하든지, 또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교적인 사상에 대한 바울의 교훈과 함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을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여야 합니다(마 24:1-28). 배도에 관한 경고와 명확한 판단은 주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모든 시련을 통과하여 인내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재림이라는 미래와 고난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올바른 교훈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든 생활을 외면하거나,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열세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자상 명령을 소홀히 하는 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현전에 눈여겨 있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인내보다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게 할 것이며, 균형적인 종말적 삶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김형욱 목사(출판국지)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2지희 월례회
일시: 7월 16일(수) 수요일 9시 예배 후
장소: 양아부실
2. 중헌 호소부 월례회
일시: 7월 18일(금) 18:00
장소: 베다니홀

결론

1. 전영희 군간계 켜, 이훈일 켜의 아들,
14교구와 박귀영 열사(순회)의 전향의 딸,
14교구/ 7월 17일(목) 12:00 갈릴리움

별세

1. 민형식 타고성도 민경숙 장사의 부친, 최
성식 성도의 장인, 12교구 선산구역/ 7월
3일 별세, 7월 5일 장례
2. 신도의 장사 이효순 성도의 장인, 5교구
양계구역/ 7월 3일 별세, 7월 5일 장례
3. 공헌자 권사 15교구 봉헌2구역/ 7월 4일
별세, 7월 7일 장례
4. 김기현 은희집사 김계범 장사의 부친, 11
교구 목정구역/ 7월 9일 별세, 7월 11일
장례

◆ 남녀 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 전도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 ~ 2003년 8월 마지막 주일까지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첩

◆ 2003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안내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한 중·고·대·대학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여제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여 교회 각 부서에
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2. 신청기간
2003년 7월 13일(오늘날까지)
3. 신청장소: 교육관
4. 문 의: 교육관 ☎552-8200 교472, 473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동산 산역관리인(속사역)
윤전직
미화직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하차 출퇴근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기도의향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
치하시므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
를 선포하는 정결한 품으로 사용하여 주소
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
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건전의 능력을 소유
하게 하소서.
- ③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
분자가 진리를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므로,
주어진 모든 목표와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
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가인들이 주어진 본
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
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헌
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구구별 태산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
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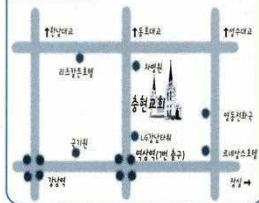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당당

	14(월)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주일)
설교자/기도자	김교성/고계승	이태복/김희선	여국근/김종만	나광영/최남하	이유진/정부조	정현민/김영순	류병희/김정자

예배 담당안내 (7/16~7/20)

날짜	예배	예배 전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7/16	수요 I		이종대	신순호	김정현 성전(별전 24-5) 정진호 목사
7/16	수요 II		이태복	김현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9-14) 임현덕 목사
7/18	금요일예배	특별찬양 (테너 이상주/아련 중창단/별원 찬양대)	이종대		김동하 목사
7/20	주일 I		하종철	이철호	감장하락(막 4:35-41) 이종대 목사
7/20	주일 II	내 갈 길 없고 밭은 길인데 외/마리톤 서준성(가브리엘 찬양대 지휘)	정현민	최지윤	감장하락(막 4:35-41) 김용덕 목사
7/20	주일 III	관동길에 생애는 어둔 바다 외/소프라노 주진(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류병희	권병욱	감장하락(막 4:35-41) 이종대 목사
7/20	주일 IV	관한 내 영혼 편히 쉬 곳과 외/임아누엘 여성 중창단(지도: 홍성미)	정진호	전홍필	감장하락(막 4:35-41) 여국근 목사
7/20	주일 V	내 모든 시련 무가운 짐을 외/소프라노 김진미(별원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정수	김종규	감장하락(막 4:35-41) 이종철 목사
7/20	주일장악		나광영	김종춘	광종 속에서와 믿음(막 4:35-41) 안창덕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김순호 노광영 오진국 이병학
신교위원장 /교구장 담서기 재학위원 교육위원장
- 최태민 엄필성 강도용 이 훈 남순우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정운석 김영길 조인재 김종구 최무길
교구장 부장재학위원장 부장재학위원장 부장재학위원장
- 김천재 이상호 차진석 조남관 이종석
사무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이병욱 안종욱 임무현 최기홍 이광재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전홍필 전홍필 이정우 김단홍 황영일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한송규 김영수 김한기 원운철 이형수
신교위원장 신교위원장 신교위원장 신교위원장
-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박태양 이태식 정재두 박용규 권병욱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이철호 박찬선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최지윤 노영한 박철규 정정진 신상수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강철형 고계승 김영은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재학위원장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인기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여영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철 여국근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김교성 유현민 안창덕 방준영 나광영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정진호 김용덕 이성욱 고광환 김동하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위진환 김현자 김성수 장 준 임현덕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이희식 최홍철 허종철 안치현 이태복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정승진 양재용
3부목사 3부목사
- 전도소도 이광철
- 여전도사
- 정현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순 김연식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홍순애 이숙자 김갑자 안태순 김경연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조소자 강덕필 김성진 장재구 최원실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전소희 김성순 김경자 이수경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3부목사
- 찬양팀장 김인성 ■ 전집지자 서준성
■ 전집팀장 김순연 ■ 전집지자 김기영
■ 전집지자 김기영 ■ 전집지자 김기영
■ 전집지자 김기영 ■ 전집지자 김기영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주, 화, 목요일 제외)	
	IV 오후 1:00(목요일 제외)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금요일 제외)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효도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일예배 후 본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청 년 2 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오후 12:5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장 년 1 부	오후 12:50	교육관 407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오후 12:50	교육관 307호
유 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소 랑 부	오후 12:15	갈릴리움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오후 12:15	갈릴리움
유 년 부	오후 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10:30	교육관 407호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초 중 부	오후 10:30	교육관 407호	사 랑 부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오후 10:30	교육관 507호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매박다부	오전 9:00(목요일 제외)	교육관 207호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오전 9:00(목요일 제외)	교육관 207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세가족부	오전 9:30	갈릴리움, 베다니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오전 9:30	갈릴리움, 베다니홀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헌전안치부	주안교구	출현회전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주안교구	출현회전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오전 11:00	아 벨 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갈릴리움
대학 부	토, 일요일 4:0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갈릴리움
	토, 일요일 4:0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갈릴리움
청 년 1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갈릴리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오후 6:10	갈릴리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도.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